

# 벽골제서 펼쳐지는 농경문화의 모든 것 여기에

**문** 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최초 5년 연속 대표축제인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농경문화의 산실인 김제 벽골제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김제지평선축제는 전통농경문화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지역문화유산을 현대의 감각에 맞게 구성한 축제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황금들판의 비경 '지평선(Horizon)'이라는 무형의 아이템을 통해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자 다리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축제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에는 'Beyond Korea, Global Gimje Horizon Festival~!'이라는 슬로건으로 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5개 분야 55개 프로그램'으로 새 단장을 진행한다.

이번엔 농경문화를 주제로 차별화된 벽골제 랜드마크 쌍룡을 활용한 개막식과 대동성을 위한 피날레 화합한마당 폐막식을 연출할 예정이다.



우선 20일 열리는 개막행사에서는 식전행사로 비전대학교 태권도 시범공연과 자매결연도시인 동해시의 색소폰 5중주 공연에 이어 김제 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공식행사에서는 정화문 제전위원장의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개막기획공연으로 '새로운 지평선을 열다!'라는 주제로 연출되며 메머드급 대형 멀티미디어 불꽃 연출이 대폭 강화된 지평선 판타지쇼 시즌II가 펼쳐진다. 이어 벽골제 건너편의 국립청소농생명센터에서는 국내외 초청인사를 대상으로 리셉션이 간소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글로벌 육성축제로의 전환을 위해 새롭게 준비한 '에메이징 대형세계 국가 만들기', '글로벌 캐릭터 퍼포먼스' 등은 흥미로움과 볼거리를 제공하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제지평선축제 하면 빠질 수 없는 '벽골제 전설 쌍룡놀이'와 풍년기원 입식줄다리기 및 벽골제 쌍룡 횡보퍼레이드 등은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진행한다.

또한 향후 김제지평선축제를 이끌어 갈 농경

문화 콘텐트로 '농악'과 '농주'의 봄 조성을 위해 '한민족의 일! 농악 기획공연(농악아, 놀자!)'과 '대한민국 막걸리 페스티벌'은 축제 속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다.

김제지평선축제는 향후 지속가능한 축제로의 전환을 위해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농촌마을 체험과 숙박이 어우러진 '농촌에서의 하루'와 '지평선팜스테이'를 확대 운영하며, 儒佛문화를 통한 정신수양을 위해 마련한 '학생강당 예절교육'과 '금산사 템플스테이'가 축제기간 내 상시 운영된다.

또한, 지평선축제의 주무대인 벽골제가 수리 시설임에 착안해 2014년부터 마련한 수상마당의 프로그램 강화와 주·야간 상시적 운영을 위한 야간 경관조명이 확대 운영된다.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간별 주제에 부합하는 효율적·효과적인 디스플레이 연출과 야간 채류형 프로그램이 수시 운영된다. 구정문에는 대형 꽃탑, 축제장에는 윈드베너, 지구본 에어바이블 조형물들이

대형세계 국가 만들기  
글로벌 캐릭터 퍼포먼스 등  
올해 글로벌 축제 전환 위해 준비  
쌍룡 횡보퍼레이드 등은 업그레이드

체험·숙박 어우러진  
농촌에서의 하루 확대 운영  
학생강당 예절교육 상시 운영  
야경·야설 등 4가지 볼거리도

설치되어 관광객의 눈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또한, '김제 벽골제 야(夜) 한밤에'이라는 주제로 야경(야경), 야설(야設), 야화(야花), 야로(夜路)의 4가지 볼거리를 마련하여 축제기간 중 언제 오더라도 볼거리가 있는 행사장이 조성된다.

시기적으로 매년 김제지평선축제가 열리는 기간에는 축제의 배경인 김제 금단평야의 황금들판과 화사하게 핀 코스모스 400리길이 주변에 어우러져 있어 면면히 이어져 온 농경문화의 진수를 맛볼 수 있게 된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올해는 대한민국 최고를 넘어 세계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 정성스런 손님맞이 준비를 갖추는 등 세계인이 인정하는 넘버원 축제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쏟아 부었다"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생 잊지 못할 가을날의 추억을 만드시길 원한다면 올 가을엔 반드시 김제지평선축제장에 오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 지평선축제... 오늘부터 24일까지

● 임실 N치즈축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 긴 추석연휴... 임실치즈 먹고·즐기자

**임** 실치즈축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2017 임실치즈축제'가 농익은 가을날인 10월, 우리와의 즐거운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추석연휴 기간인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에서 열리는 임실치즈축제는 올해 더욱 특별하고 알차다. 임실치즈 역사가 시작된 1967년 이후 50주년이 되는 해에 열리기 때문이다.

가을을 대표하는 꽃인 국화꽃 천만송이로 수놓인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초원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을 설레게 한다. 치즈를 테마로 한 80여개의 흥겨운 프로그램과 덩으로 할인받는 임실치즈 등 온갖 즐길거리와 먹거리, 볼거리로 가득한 임실치즈축제. '웃어봐요! 치즈, 행복 쪽~'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올해 '긴~' 추석명절 연휴에는 아름다운 국화꽃 향기로 가득한 임실치즈와 함께 신나게 놀며, 크게 웃어보면 어떨까.

/편지자 주



▲추석명절 연휴엔 임실치즈축제와 함께  
올해 '2017 임실치즈축제'는 여러가지로 독특하고 낱다르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축제 기간이다. 올해 임실치즈축제는 최장 10일간의 황금연휴인 추석명절 기간에 열린다. 10월 4일 추석 이후인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열리는 이번 축제는 명절 연휴 고향을 찾아 내려오는 전국 각지의 귀성객을 겨냥, 최다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해 두 번째로 열린 축제에 21만명이 찾았다면, 올해는 30만명도 가능할 것으로 굳은 전망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1967년 벨기에 출신의 지평환 신부가 치즈를 도입한 후 50주년을 맞는 해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로 치러지기도 한다. 아울러 6일 오전에 임실공설운동장에서 군민의 날 행사가 성대히 열리고, 오후에는 치즈축제 개막식 무대가 펼쳐진다.

▲8m 규모... 국가대규모 왕치즈피자 등장  
임실치즈축제는 치즈를 활용한 10개의 테마 속에 무려 80여개의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 중 올해 축제에는 지름 8m의 대형 피자가 새롭게 등장한다. 임실치즈의 주제성을 최대한 살려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국가대규모 왕치즈피자 만들기'가 눈길을 끈

다. 관광객 3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로 축제 3일째 날인 8일에 진행된다.

또한 관광객과 함께하는 '치즈범벅 모자이크' 프로그램도 색다른 재미를 안겨준다. 치즈나 치즈범벅 모자이크는 임실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다양한 농산물과 치즈와 고추장을 활용해 모자이크 주먹밥을 만들어 임실치즈 생산 50년을 생동감있게 표현하는 행사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의 행복할 순간을 포착해 시상하는 '임실치즈스마일 포토컨테스트'도 열린다. 매일 우수작 10점을 선정해 임실치즈 산물세트를 증정할 계획이다.

관광객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형퍼레이드도 매일 세차레씩 진행된다. 마치 유럽에 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할 만큼 유럽형 퍼레이드를 선사한다. 퍼레이드 종점인 시계탑 갤러리에서는 관광객과 함께하는 유우드림 행복드림 퍼포먼스를 연다.

▲특별한 당신을 위한 밤의 초대 '아모르파티'  
올해 축제부터는 야간프로그램으로 아모르파티가 새롭게 선보인다. 치즈테마파크 시계탑 갤러리에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매일 밤 8시에 열린다.

아모르파티는 치즈와 맥주 그리고 EDM 댄스 파티로 진행된다.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은 축제 홈페이지와 현장접수를 하면 된다.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행사 '풍성'  
아이들을 위한 재미진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특히 치즈마을에서는 가족과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많이 준비했다. 물고기 우유 주기와 치즈 낚시터, 치즈광광(에어바운스 놀이랜드), 매직쇼, 버블쇼 등이 펼쳐진다. 축제 기간 동안 피치뽕빵 전기 자동차를 운영해, 치즈마을과 치즈테마파크를 오가는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밖에도 임실치즈테마파크 일대가 어린이 놀이터가 된다. 바람의 언덕 위에 우뚝 선 치즈모형의 전망대에 오르면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경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평소엔 절대 NO...축제때만 임실치즈 가격할인  
평소에는 결코 할인판매를 하지 않는 임실치즈와 관련 유제품들에 대한 가격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축제를 찾아온 관광객들에 대해 20% 가격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다. 축제장에 마련된 치즈 음식점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치즈음식을 체험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불려들 관광객을 위한 셔틀버스

를 운영한다. 굳은 지난 해 관광객이 대거 몰려 불편함이 컸던 교통문제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셔틀버스 운행으로 관광객 편의를 도모한다. 임실읍내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축제장과 연결하는 셔틀버스는 물론 전주 시내권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전주공설운동장과 전주시청, 르윈호텔을 경유하는 셔틀버스도 병행 운영한다.

특히 야간 프로그램인 아모르파티가 끝나는 저녁 10시에는 치즈테마파크에서 전주까지 이동하는 야간 셔틀버스를 추가로 운행해 관광객의 안전한 귀가를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축제 내용 및 프로그램 참여는 임실치즈축제 홈페이지(http://www.imseulfestival.com, 063-643-3900)에서 가능하며, 치즈·피자체험에 약은 임실치즈마을(http://cheese.invl.org, 063-643-3700), 임실치즈테마파크(www.cheesepark.kr, 063-643-2300)로 연락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